

2012 1분기 호주 한류 동향 보고

호주(시드니) 지정은 통신원

◆ 장르별 동향

1. 방송 산업

1978년 이후 호주 정부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을 위해 미디어 관련 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그들이 호주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다문화, 다언어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방송사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를 설립한 것이다.

1980년대까지 공영방송인 ABC에서는 다민족 이민자 시청자들의 존재를 크게 인식하지 않았고, 그들을 배려한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했다. 이로 인해 다문화, 다언어로 구성된 방송의 필요성을 인식한 정부의 추진으로 SBS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호주 미디어 역사의 단면을 이해한다면, 호주 방송 프로그램 중 한국 문화 및 기타 한국어 관련 프로그램이 대부분 SBS에서 편성되어 방영되고 있는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뉴스의 경우 SBS에서는 매일 아침 5:05에 방영되고 있으며, 한국과 관련된 최근 뉴스 및 교민동향에 대해 방송하고 있다. 뉴스 이외의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한국영화 콘텐츠이며, 월드 무비채널과 SBS를 통해 중복되어 방영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TV 방영/ 한국영화>

제목	방영 날짜 및 시간	방송국/ 채널
사마리아 (Samaritan Girl)	1월 3일 11:40pm 3월 15일 12:55am	SBS

10억 (A Million)	1월 18일 12:20am, 5:30pm 3월 15일 7:30pm 3월 16일 10:40am	The World Movies Channel
나는 악마를 보았다 (I Saw the Devil)	1월 18일 9:30pm, 1월 28일 12:05am	The World Movies Channel
하녀 (The Housemaid)	1월 21일 9:30pm 1월 22일 1:35pm 1월 31일 9:35am 2월 1일 1:45am 3월 5일 6:15am 3월 6일 12:30am 3월 16일 10:55pm 3월 17일 2:10pm	The World Movies Channel
김씨 표류기 (Castaway on the Moon)	1월 24일 6:25pm, 7:00am 3월 23일 9:30pm	The World Movies Channel, SBS
그림자 살인 (Private Eye)	1월 25일 6:35pm	The World Movies Channel
괴물(The Host)	1월 26일 12:55pm 3월 17일 7:30pm 3월 18일 12:35pm	The World Movies Channel
살인의 추억 (Memories of Murder)	2월 1일 11:10pm 2월 10일 9:30pm 3월 22일 12:25am	SBS
숨 (Breath)	2월 1일 11:15pm 3월 27일 1:00pm	SBS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I'm A Cyborg But That's Ok)	2월 10일 11:50pm	SBS
쌍화점 (A Frozen Flower)	2월 14일 8:30pm 2월 15일 1:05pm	The World Movies Channel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The Good The Bad The Weird)	2월 24일 11:25pm 3월 24일 11:55pm	SBS

태극기를 휘날리며 (Brotherhood)	3월 2일 12:45am	SBS
야수(Running Wild)	3월 2일 12:50am	SBS
박쥐(Thirst)	3월 3일 9:30pm	SBS
올드보이(Old Boy)	3월 3일 11:55pm	SBS
해운대(Tidal Wave)	3월 7일 8:05am, 4:55 pm	The World Movies Channel
멋진 하루 (My Dear Enemy)	3월 20일 11:05pm	SBS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Spring Summer Autumn Winter and Spring)	3월 25일 9:30pm	SBS
파주(Paju)	3월 30일 9:30pm	SBS

그 외에도 SBS에서는 3월 23일과 3월 30일 오후 9시 35분에 한국전쟁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다큐멘터리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현재까지 여전히 분단의 결과를 가져온 같은 민족 간의 비극, 한국 전쟁의 발발과 교착상태라는 두 가지 테마로 나뉘어 방영되었다.

<방송 관련 행사>

호주 방송사들은 협소한 미디어 시장으로 인해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기 보다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7일(시드니)에 열린 첫 한국 방송 콘텐츠 상영회는 호주 미디어 시장에서 한국 방송 프로그램의 우수한 수준을 호주 방송 관계자들에게 알리고, 보다 폭넓게 호주 미디어 시장을 개척하여 한국 프로그램의 수출 확대를 도모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 행사명 : 한국 방송 콘텐츠 쇼케이스
- 날짜 및 장소: 2012년 2월 7일, 시드니
- 주최: 방송통신위원회
- 주관: 한국인터넷진흥원
- 참석 인원: 30 ~ 40여명
- 소개 프로그램: <남극의 눈물>, <누들로드>, <신들의 땅>, <앙코르>, <고수비급>, <아이리스>, <해를 품은 달>, <뿌리깊은 나무> 등 인기드라마, <위대한 탄생>, <라이브 파워 뮤직> 등

※ 자료 출처:

- <http://koffia.com.au/>
- <http://www.sbs.com.au/>
- <http://www.한국herald.com.au/>

2. 영화 산업

<영화 상영 및 제작 관련 소식>

2012년 올해 초 가장 반가운 영화 관련 소식은 호주의 주요 극장인 Hoyts에서 상영된 엄정화, 황정민 주연의 최신 한국영화 <댄싱퀸>의 소식이다. Hoyts는 호주와 뉴질랜드 전역에 약 55개의 극장과 448개 이상의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는 오세아니아 지역 최대의 대형 프랜차이즈 영화관 중 하나이다. 영화 <댄싱퀸>은 처음에는 시드니에서만 상영되다가 점차 브리즈번, 멜번 등과 같은 다른 대도시에서도 상영되었다. 그 외에도 한인 김시우 감독이 최초로 호주 현지 스태프와 배우를 모두 캐스팅하여 화제가 되었던 저예산 장편 영화 <Forget Me Not>의 제작 관련 소식과 호주에서 경험하는 한인들의 희로애락의 삶을 영상으로 담은 김진숙 감독의 ‘Koreans in Australia’가 화제가 되었다.



<김진숙 ‘호주의 한국인’(좌), 김시우 ‘Forget Me Not’(중), 이석훈 ‘댄싱퀸’(우)>

1) 댄싱퀸(Dancing Queen)

- 장르: 코미디, 드라마
- 감독: 이석훈
- 상영일자 및 극장명: 2월 16일 - 29일, Hoyts Broadway, Chatswood
3월 1일 - 7일, Hoyts Broadway, Chatswood, Chadstone & Carousel
3월 8일 - 21일, Hoyts Sunnybank

2) 호주의 한인들(한국s in Australia/ 무료 시사회)

- 장르: 다큐멘터리
- 감독: 김진숙
- 상영일자 및 시간: 2월 18일, 18:30
- 극장명: Dendy Opera Quays
- 규모: 100여 명

3) Forget Me Not

- 장르: 저예산 장편영화,
- 감독: 김시우
- 상영일자: 2012년 말 상영예정
- 의의: 한인 감독 최초로 호주 현지의 배우와 스태프를 캐스팅하여 호주 영화계의 주류사회로의 진출을 계획함

<영화 상영회 및 영화제 소식>

시드니 총영사관의 주최로 지난 해 두 번째로 개최된 ‘호주 한국 영화제(KOFFIA, 한국 Film Festival in Australia)’의 연이은 성공은 호주 내의 한국 영화에 대한 인지도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는 시드니 한국문화원에서는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 ‘Cinema on the Park’라는 타이틀의 영화 상영회를 통해 알 수 있다. 2월 9일 영화 <시(Poetry)>를 기점으로 시작된 올해 ‘Cinema on the Park’의 참여 관객의 수는 영화마다 차이가 다소 있지만 작년과 비교해 볼 때 두 배나 급증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한국영화에 대한 노출을 통해 올해 개최될 ‘호주 한국영화제’로의 현지인들의 관심 또한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시드니 문화원 ‘Cinema on the Park’에서 상영된 영화>

영화명	상영일자 및 시간
시(Poetry)	2월 9일, 18:30
서편제(Sopyonje)	2월 16일, 18:30
아저씨 (The Man From Nowhere)	3월 1일, 18:30
나는 악마를 보았다 (I Saw the Devil)	3월 8일, 18:30
추격자(The Chaser)	3월 15일, 18:30
황해(The Yellow Sea)	3월 22일, 18:30

<그외 영화 관련 소식>

- 영화제 명: 바이런베이 국제 영화 페스티벌(Byron Bay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상영영화: 인터뷰(Interview)
- 상영일자: 3월 5일, 4:00pm
- 자료 및 사진 출처: <http://한국culture.org.au/>, <http://www.hoyts.com.au/>
www.pozible.com.au/Cached, <http://au.christiantoday.co.kr/>

3. 음악 산업

지난 해 한호 수교 50주년의 행사로 인해 호주 내에는 한국 인기 가수들의 호주 공연이 잇달아 개최되었다. 특히 지난 해 말 시드니에서 열린 'K-Pop Music Festival'에는 현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소녀시대, 카라, 슈퍼주니어, 비스트를 비롯해 한류에 많은 기여를 한 K-Pop 가수들이 한 무대에 서는 공연이었다. 반면에 올해 1월부터 3월 말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는 젊은 세대를 위한 K-Pop 아이돌 그룹의 공연이 아닌 중장년층의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공연들이 주로 열렸다.

1) 남진 시드니 콘서트

- 날짜: 2월 4일(토) 오후 3시 & 7시 반 2회 공연
- 장소: 더 콘코스(The Concourse) 409 Victoria Ave, Chatswood (앞)

2) 세시봉과 친구들

- 출연진: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
- 날짜: 2월 18일(토)
- 장소: 오페라 하우스 콘서트홀

한편 호주에서 아시아 음악을 주로 방송하는 SBS의 'PopAsia'의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K-Pop 관련된 소식들이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사들이 호주 현지 미디어가 아닌 한국이나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번역된 것들이기에 현지인들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살피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PopAsia' 홈페이지에서는 'PopAsia Top 8'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 목록의 곡들은 호주 내에서 현재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들이다.

목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듯이 다른 지역의 아시아 가수들과 비교해볼 때 K-Pop 가수들이 보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가수명	곡명	국적
2AM	Wonder if You Hurt Like Me (너도 나처럼)	한국
B.A.P	Warrior(워리어)	한국
B1A4	Baby I'm Sorry	한국
빅뱅	Blue	한국
빅뱅	Bad Boy	한국
빅뱅	Fantastic Baby	한국
블락비	Nanrina(난리나)	한국
비투비	Insane 비밀	한국
FT 아일랜드	Severely(지독하게)	한국
소녀시대	Time Machine(타임머신)	한국
박재범	Know Your Name	한국
카라	Girls Power(걸즈 파워)	한국
레드 애플	Sadness(새드니스)	한국
엠블랙	It's War(전쟁이야)	한국
미쓰에이	Touch	한국
나인뮤지스	Ticket(티켓)	한국
뉴이스트	Face	한국
샤이니	Sherlock(셜록)	한국
신화	Venus	한국
스피카	Russian Roulette(러시안룰렛)	한국
틴탑	Crazy (미치겠어)	한국
유키스	Forbidden Love	한국
Exo	History	한국 + 중국
카리 파유파유	Candy Candy	일본
엠 플로	All I Want Is You	일본
스캔들	HARUKAZE	일본
크리스탈 케이	Delicious Frida	일본
AAA	Sailing	일본
소아현	I Love Me	중국
롤리팜 에프	Dance	중국

클래식 관련 소식으로는 한인 여성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원이 2월 11일 멜번 심포니 제1 바이올린 주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최근 ABC 클래식 FM에서 김지원의 두 번째 CD가 출판됐고, 호주 3대 클래식 매니지먼트사 중 하나인 위버(Weaver) 매니지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 위버 매니지먼트는 영화 <샤인>의 주인공이었던 호주 피아니스트 데이빗 헬프갓의 소속사이자 호주의 뛰어난 클래식 음악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김지원은 호주 최대 콩쿨인 ‘ABC 젊은 연주가상(ABC Young Performer’s Award)’ 대상 및 ‘SBS 매튜 크렐 프라이즈(SBS Matthew Krel Priz)’ 대상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 자료 출처

- http://www.sbs.com.au/chinese/news/2727/Top-8?siteLanguage=en_AU

- <http://www.koreatimes.com.au>

4. 공연 전시 산업

올 해 초 호주에서 가장 주목받은 행사는 피트 스트리트와 시티 리버풀, 바서 스트리트 인근지역에서 한인들만의 설날축제를 열게 된 것이다. 해마다 시드니에서 열리는 민족설 축제는 ‘시드니 중국 설 축제(Sydney Chinese New Year Festival)’라는 타이틀로 개최되어, 한국의 설축제는 중국 축제의 연관 행사로만 그쳤고 이로 인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시드니 상우회를 중심으로 한인들이 시드니 카운슬에 행사명 개칭을 여러 차례 요구한 결과 마침내 올해 1월 28일 ‘한인 타운 민족설축제(Korea Town Lunar New Year Festival)’라는 행사명을 얻게 되었다.

시드니 시티 카운슬이 한인들만의 설날축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 한호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음으로써 호주내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지위 향상에 기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인타운 민족설축제 행사 모습. 사진 출처: 시드니 상우회>

- 행사명: ‘한인 타운 민족 설축제(Korea Town Lunar New Year Festival)’
- 날짜 및 장소
 - 1월 28일, 피트 스트리트와 시티 리버풀, 바서 스트리트 인근 지역
- 페이스 페인팅과 한복 패션쇼, 한인회 소속 윈드 오케스트라의 연주, K-Pop 콘테스트 개최로 중국인, 베트남인, 한인, 호주인으로 구성된 약 80개 팀의 2,900명이 참가 (한인 12개 팀, 약 300여 명)
- 1월 29일, 시드니 타운홀 앞 조지스트리트를 시작으로 골번스트리트, 서섹스스트리트, 헤이스트리트, 달링하버까지 이어지는 야간 퍼레이드

<그 외 공연 및 전시관련 소식>

1) 한국 최초 여성우주인 이소연 박사 강연

- 날짜: 1월 24일 (영어) - 25일 (우리말)
- 장소: 주시드니 한국문화원
- 규모: 약 50여명

2) Thank you, Emma /자선 콘서트

- 날짜: 2월 26일 일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스트라스필드의 러시아 클럽
- 출연: 호주의 유명 재즈 드러머 사이먼 바커, 판소리 명창 배일동, 국악인 김동원
- 주최: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
- 규모: 270여 명 (주최 측 추산)

3) 한국 art Today/ 미술 전시

- 날짜: 2011년 5월 18일 - 2012년 3월 20일
(* 2012년 3월 호주 Art Month의 일원으로 3.1 - 3.20 동안 참여)
- 장소: 시드니 한국 문화원 전시홀
- 전시작품 수: 이이남 작가 외 현대 한국미술 작가의 작품 50여 점

작가명	작품명	작가명	작품명
강익중	애국가, 2011	이승아	페이스 모자이크, 2011
구자영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삼	달빛, 2008
구성연	팝콘 시리즈 #g07, 2007	이구용	산-공명, 2006

김연	물가, 2008	이이남	도포-역사 다시 쓰기, 2011
김선두	행(行)-여름강변, 2007	이이남	그곳에 가고 싶다, 2010
김주호	푸하하, 2009	이이남	아이러브 머니, 2010
김주호	우뚝이, 2009	이이남	겸재 정선-박연 폭포, 2010
김성복	신화, 2010	이이남	겸재 정선-인왕제색도, 2010
김창영	Sand Play 0605-p, 2006	이진	삶의 단계 200501, 2005
김창겸	물-그림자, 2004	이재효	0121-1110 = 108605, 2008
권기동	The nigts, 2008	양대원	의심-노란 계단, 501090, 2009
권두현	#03230, 2008	유승호	사랑, 살랑살랑, 2004
권기수	Run with Flowers, 2009	유현미	거북이와 사다리, 2009
문봉선	음률, 2005	조병완	명상, 2005
민재영	PAUSE-흠어지는, 2004	정재호	City Tour, 2004
박준범	15 굴착기, 2003	정경연	어울림2010-9, 2010
박준범	퍼즐 3-05(X4), 2009	주도양	우드 06-폴라, 2006
박준범	퍼즐, 2005	정복수	인생을 찾는 사람, 2002
박준범	송도만들기, 2009	정보영	Still Looking, 2006
박성태	무제, 2004	한운성	사과, 2007
신수구	두더지 길처럼, 2006	홍성철	String Mirror_Hand_0321, 2007
송은영	침범하는, 있는, 기억되는, 2007	황인기	오래된 바람, 0309, 2009
원성원	Dream Room-Sungwon, 2003	허진	유목동물 + 인간, 2006-18, 2006
오병욱	내 마음의 바다, 2007	허위영	무제, 2008

4) 호주 하모니 데이 갈라쇼/ 콘서트

- 행사명: Diverse City-Uniting on Stage(다양성의 도시, 무대 위의 화합)
- 날짜: 3월 21일 12:30 - 3:30
- 참가 한인 개인 및 단체명: Sydney 한국 Women's Association/ 부채춤 CANTO4U/ 한국 오페라, 변영주 / Sign N Sing (수화와 노래) 및 한국댄스
- 자료 및 사진 출처: <http://www.skba.com.au/?mid=home>
<http://한국culture.org.au/>

5. 캐릭터 애니 산업

오세암(Oseam) 2월 23일, 6:30pm Cinema on the Park에서 상영

6. 한스타일

1) 장인 정신: '한국의 금속공예(Spirit of Jang-in: treasures of 한국 metal craft)' 미술 전시

- 전시 기간: 2011년 10월 28일 - 2012년 2월 12일
- 장소: 호주 시드니 파워 하우스 뮤지엄
- 관객 규모: 약 4만여 명
- 전시 내용: 청동기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한국의 금속공예품 전시

2) KEC 외국인 대상 한국어 무료 강좌

주시드니총영사관 한국 교육원에서는 2012년 외국인 대상 한국어 초·중급강좌 Term 1을 실시했다.

이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통합적으로 교육하여 의사소통 한국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한국에 대한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되었다.

- 한국어 초·중급 과정 - Term 1
- 날짜 : 2012. 2.7 - 4. 26 (12주과정)
- 장소 : 주시드니총영사관 한국 교육원 강의실
- 수업시간 :
 - 화요일 18:00 - 19:00 (Elementary Level I)
 - 수요일 18:00 - 19:00 (Elementary Level II)
 - 목요일 18:00 - 19:00 (Intermediate Level)
- * 소그룹 15명 정원으로 진행됨, 수업료 : 무료

3) 시드니 한국문화원 한지 교실

- 날짜: 2012년 3월 17일
- 장소: 시드니 한국문화원
- 규모: 약 20여 명
-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한지교실 운영
- 자료 출처: <http://www.auskec.org/>, <http://www.한국culture.org.au/ko>

7. 반한류 사례

해당 사항 없음

8. 기타

<한국 기업 소식>

1) 현대 자동차 벨로스터, 호주에서 젊은 층에게 인기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2012. 3. 28일자)에 따르면 호주 현대 지사의 사장 에드워드 리씨는 호주 시장에서 “한달에 150대의 벨로스터를 판매할 것으로 처음에는 예상했으나 출시 한 달뒤 411대를 팔게됨”에 따라 한국 현대 본사에 긴급히 연락하여, “호주로 수출하는 벨로스터의 수량을 두배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4,000대 이상의 벨로스터 호주 주문량을 고려할 때 판매량 역시 두 배 이상 증가 시킬 수 있으리라” 전망했다.

한편 현대 호주의 마케팅 디렉터 Oliver Mann은 “벨로스터의 현재 고객층은 17세부터 70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고객층은 25세 이하의 소비자들”이라고 밝혔다.

2) 삼성, 애플 같은 어린이 모델 광고 논란

삼성과 애플간의 신기술과 디자인 특허관련 전세계 법정공방은 호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호주에서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관련 자사의 10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제소,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패소함에 따라 오히려 호주내에서 애플과 삼성이 특허권 분쟁을 마무리할 때 까지 삼성의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판결을 받았다.

이에 즉각, 항소한 삼성은 재판부를 대표한 린제이 포스터 대법관이 항소심에서 “판매 금지는 삼성전자에 완전히 불공평하다”고 발언한 이후 지난 해 말 다시 호주

내에서 삼성 갤럭시탭 10.1의 판매가 재개된 바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올해 초 1월 3일 호주 시드니 모닝헤럴드 디지털 섹션에서는 판매가 재개된 삼성과 애플이 같은 어린이 모델을 광고에 기용한 것과 관련, 아이폰 4S의 어린이 모델을 경쟁사인 삼성 역시 동일한 계열의 제품 광고를 위해 기용한 것은 과연 우연의 일치인 것인지 아님 삼성 측의 고의적인 의도를 담고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 보도되었다.

<교민 소식>

1) 세계 여성의 날 행사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호주 지회 고남희 지역 담당관 참석
- 날짜 및 장소 : 3월 5일, 멜번
- 행사 내용: 성공한 여성 CEO, 트리즈레인(케빈 러드 전 외교부 장관 부인)의 연설, 여성인권 침해 실태 보고 및 코원 회원들간의 친목도모 및 주요사업 논의

2) 동포 사업가, NSW시니어 기업인상 수상 이재경 현 한인회장

- 날짜 및 수상내용: 3월18일 NSW 주정부가 수여하는 시니어 기업인상 수상
- 기업명 : 제마이홀딩스(호주의 대표적 상업용 청소용역업체), 현재 연매출 약 1억 달러(한화 약 1,150억 원)
- 수상 계기: 기업 발전과 다양한 커뮤니티의 적극적 자선 활동 및 기부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음
- 자료 출처
 - <http://www.smh.com.au/>
 - <http://www.hojudonga.com/>
 - <http://www.한국herald.com.au/>